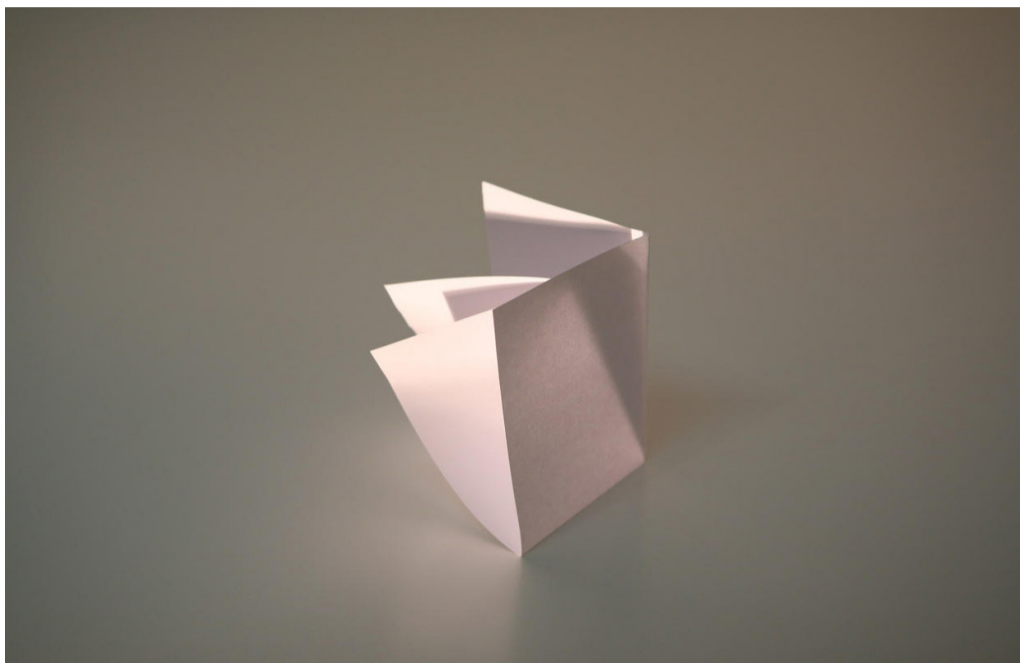


PREVIEW

토마스 히폴리토 개인전 <2018 set_04>
Tomaz Hipólito Solo Exhibition <2018 set_04>

전시기간 | 2018. 11. 9 금 - 11. 29 목
퍼포먼스 & 오프닝리셉션 | 2018. 11. 9 금 18:30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포르투갈 작가 토마스 히폴리토의 개인전 <2018 set_04>를 개최한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그는 작업을 통해 공간과 공간의 점유, 그리고 공간을 변경시키는 것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회화와 드로잉 등 매 프로젝트 별로 다양한 매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한다. 그에게 있어서 작업이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그가 작업의 주제로 삼은 모티프와 주제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다시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작가가 스스로가 진행해 온 주제적 리서치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굴”의 과정이다. 토마스 히폴리토는 여러 종류의 공간을 옮겨 다니는 것에 관심을 둔다. 특정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주어진 환경과 교감하고 실험하고자 하는 욕망을 장소 특정적 작업으로 선보여 왔다. 같은 경험이 다른 공간에서, 혹은 다른 경험이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 작가소개

Tomaz Hipólito's work has evolved in several mediums such as photography, video,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drawing. With a background in architecture, the work addresses the issues of space, its occupation and transformation, Hipólito frequently revisits motifs and themes he explores over time, a process that reflects the importance the artist gives to “excavation” as he proceeds in his thematic research. Looking upon the contexts in which Tomaz Hipólito has been producing his work, his interest in moving through different kinds of spaces becomes evident. What drives the creation of each work is the motivation he gets from a specific place, combined with his desire to experiment with and respond to settings with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Random attitudes, over a specific project, act in space in order to create singular experiences. Moreover, how can the “same” experience in different spaces, and different experiences in the “same” space, have so divergent reverberations. Hereupon, with the concept of vital space as background, Hipólito's work is ongoing research, driven by what the artist called “mapping gesture”. For him, mapping gesture is a way to create a new territory, that he names interval, which situates itself between subjectivity and experience.

◎ 작가노트

“숙련된 혹은 랜덤 제스처로 드로잉의 방식을 뛰어넘고, 종이에 몰입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체와 내용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몇몇은 그 과정을 재검토하면서 가시화되고, 몇몇은 결과물을 통해서 가시화된다.
모든 종이는 그려질 수 있다. 모든 드로잉은 제스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The immersion on paper, using trained and random gestures crossing several drawing practices,
will allow to unfold different levels of relationship between medium and content.
Some will be visible thru revisiting the process, and some will be visible from end result.
All paper is available to be drawn. Every drawing is ready to become a gesture.”

최병석 개인전 <바쁜 손 느린 마음 비워지는 선반>
Choi Byeong Seok Solo Exhibition
<The busy hands The honest mind The empty shelf>

전시기간 | 2018. 12. 14 금 - 2019. 1. 10 목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최병석 작가의 개인전 <바쁜 손 느린 마음 비워지는 선반>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 전시설명

만들기를 계속해온 작가는 만들기에 대해 고민한다. 그 고민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서 시작되었지만, 나는 왜 만들기를 하는가를 거쳐, 과연 만들기가 예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사뭇 자조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생각들은 작가의 손은 점점 느려지게 했다. 반대로 마음은 조금씩 해었다. 초민과 불안함에 모아놓은 정체불명의 재료들은 선반에 쌓여간다.

이번 최병석의 개인전 <바쁜 손 느린 마음 비워지는 선반>은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그의 지난한 고민과 그것을 발판 삼아 또 다른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모아진 아카이브와 같다. 최병석은 그간 스스로 해온 작업의 과정을 뒤돌아보고, 기존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작업의 순서를 뒤집거나 생감하고, 만들기의 목적 혹은 최종 사물의 기능에 대해 의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만들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변주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자신의 손과 마음에 달라붙은 모래주머니 같은 생각들을 최대한 차단하고, 만들기가 좋아서 시작했던 최초의 마음은 그대로 두되, 손은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새로운 재료를 사는 대신 선반에 가득 모여진 재료나 혹은 다른 작업을 만든 후 남겨진 부속품을 주로 활용하며 만들기를 이어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물들은 특정한 제목이 지어지지 않은 채, 나열된다. 그중에는 작가가 오랫동안 계획만 하며 미뤄지다 마침내 마무리된 도구, 사용 목적은 분명치 않지만 손의 감각에 의존하며 어떤 형태와 기능을 가지게 된 물건, 또는 쓸모없는 기능마저 생략된 채 형태만을 가진 물체도 있다. 모두 그의 만들기의 산물이고 그가 찾아낸 형태이다. 이번 전시는 특정한 기능과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던 기존 작업들의 방향에서 조금 멀어지며,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도록 선반 틈을 벌리려는 시도이다.

글. 장혜정(독립 큐레이터)

REVIEW with PHOTOS

정아람 개인전 <나를 위한 말하기>

Ahram Jeong's Solo Exhibition <Speaking For Myself>

2018. 10. 5 금 - 2018. 10. 25 목



1 | 작품 <우연히 살아남은 내가 당연히 살아남았어야 할 너에게>

2 | 아티스트 토크, 10월 13일 (패널: 이성휘 하이테크렉션 큐레이터)

강남역에서 살인사건의 추모집회에도, 혜화역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도, 부끄럽지만 나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정아람 작가는 계속 현장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더 고민하고, 현실에 두 발을 굳게 디딘 채 발언을 했다. 전시장 안에서 우리는 프로젝터를 통해 강남역에 붙어 있던 수많은 메모의 문구들을 읽어볼 수 있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잠재적 협력의 공간'이 된 화장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문제다. (글: 최정운 협력 큐레이터)

오인환 개인전 <나는 하나가 아니다>

Oh Inhwan's Solo Exhibition <I Am Not One>

2018. 9. 4 화 - 2018. 9. 28 금



1 | 작품 <나의 이름들>

2 | 아티스트 토크, 9월 16일

전시 제목 <나는 하나가 아니다>는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인 상태임을 함축하고 있다. 타자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보는 경험을 통해 규범화되어 있는 문화구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작가가 해오던, 그리고 앞으로도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점들이라 본다. 모르고 있었던, 알고 있었으나 잊고 있었던 그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작가가 한 발 물러나 촬영한 인터뷰 영상,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 작품 등 강/약 조절이 잘 배인 전시였다고 생각한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EVENT

[세미나] 동시대 미술과 전시공간의 역할

□ 일시 : 2018. 11. 3. 토 오후 2시~6시

□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14:00~14:15 인사말

Part 1. 동시대 미술의 몇 가지 흐름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14:30~15:00 현대미술의 플랫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디렉터)

15:00~15:30 대안적 타자성을 위한 미술 실천
오인환 (작가,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15:30~16:00 비평의 역할: 그림을 그리는 그와 글을 쓰는 나
안소연 (미술평론가)

16:00~16:30 경계없는 공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과연 '스페이스'인가?
장승연 (전 아트인컬처 편집장)

16:30~17:00 제도권 미술공간의 확장성:
PT&CRITIC 프로그램의 의의
임 산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Part 2. 전시공간의 운영, 지속가능성과 관객에 관하여

17:10~18:00 라운드 테이블

참가비 : 무료

SOLO SHOW

□ 일시 : 2018. 10. 25 목 - 10. 28 일

□ 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0, 해당하우스

가나아트갤러리 | 갤러리2 | 갤러리 조선 | 갤러리 플래닛 | 갤러리 ERD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아마도예술공간 | 아트사이드 | 원룸 | 의외의조합 | 조현화랑 | 학교재 | 합정지구 | WHISTLE | MK2갤러리 | P21

<SOLO SHOW>는 다양한 시스템의 전시공간들이 고정된 공간과 시간대를 벗어나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만드는 일시적인 행사이다. 컨텐츠가 부재하는, 혹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유휴공간 등 임시적 성격의 환경을 물색, 색다른 전시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흥미롭고 새로운 미술시장을 제시하여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활동의 일환이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각각의 갤러리들은 함께 활동하는 작가 중 한 명의 작가만을 소개함으로써 판매 이전의 홍보활동을 우선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작품 가격으로만 작품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작가의 활동과 작품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는 갤러리 고유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인전이 모여 하나의 전시로 만들어짐으로써 각 갤러리에서 소개하는 작가에 대한 홍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작가 소개의 장이 될 것이다. 동시에 미술을 즐기는 이들에게 현대미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이다.

리셉션 10. 24 5pm-8pm

오픈 10. 25 - 27 1pm-8pm / 10. 28 1pm-6pm

주최 협동작전(COOP, Check Out Our Project)

후원 BREWERY304, STUDIO OL



SHORT-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노은주 작가는 BREGA Artist Space에서 열린 그룹전 <세 번 접었다 펼친 모양>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현수 작가는 이유진 갤러리에서 개인전 <The Line>을 가졌습니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정형, 장준호 작가는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린 <2018 SeMA 예술가 길드>에 아워레이보(이정형, 장준호, 오유미, 최병석, 오용택, 정기훈)라는 콜렉티브 그룹으로 참여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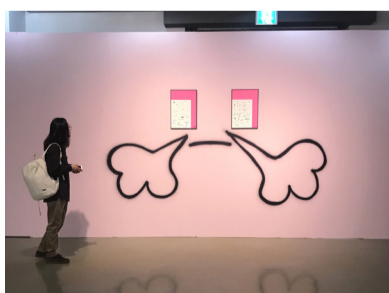
변상환 작가는 스페이스 소에서 개인전 <물질과 흥분과 짧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강현선, 변상환 작가는 스페이스원에서 열린 그룹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홍순명 작가는 아마도 예술공간에서 개인전 <X의, Y의, 그리고 Z의>를 가졌습니다. (대화자: 고재욱, 로와정) 2018년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오인환 작가는 봉산문화회관에서 2018 지역공작소 <나는 하나가 아니다>를 가졌습니다. 2018년 10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세준 작가는 아트스페이스 보안 1에서 열린 그룹전 <NO IFEKING>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추미림 작가는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린 그룹전 <대구 뉴-바우하우스>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추미림 작가는 갤러리 룩스에서 열린 그룹전 <Subscale>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김수영 작가는 원랜제이 갤러리에서 개인전 <View & Hide>를 가졌습니다. 2018년 10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홍승혜 작가는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열린 그룹전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병규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린 오픈스튜디오(10.19-10.21)와 2018 플랫폼 아티스트 전시(10.19-11.18)를 가졌습니다.

이미혜 작가는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 그룹전 <뉴스 리플리에게>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한성우 작가는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열린 그룹전 <생각을 넘어>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0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W&D NEWS

프랑스 유학중인 이신에 전 인턴은 명절을 맞이해 잠시 귀국했다가 "월달화만 사성" 지원 차원의 방문이 있었다. 김인선 디렉터와 한황수 코디는 따로 기념 촬영식을 가졌다.



최정운 협력 큐레이터는 박사 과정 코스워 마지막 학기를 맞아 각종 읽을거리들에 허덕이고 있다. 명확하지 않아도 버벅이며 말하기를 시도하는 나날이다.

논문 준비로 월달을 떠난 맹성규 전 인턴은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운동하기, 면허증 따기, 3D 그래픽 익히기, 홈페이지 만들기, 쌓아둔 책읽기 등등... 논문 무사 통과를 기원한다!

오시는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 한황수
감수 : 김인선
발행일 : 2018년 10월 23일